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06

#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약속

(창세기 15:1~21:7)



궤다란 탑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!  
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.  
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질투하고.  
하나님의 세상은 눈물과 욕심투성이었죠.

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세우셨어요.  
어느 한 가족을 통해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계획이었죠.

바로, 아브람의 가족이었어요!



**“여러분 안녕하세요? 보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노인이지요.  
이제 제 나이가 가만있자...  
하도 나이를 먹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..  
거의 뭐, 백 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.”**

**우와.. 여러분은 백 살 가까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?**

**저렇게 나이가 많은 아브람을 통해  
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고치신단 걸까요?**



유난히 밤하늘이 잘 보였던 어느날  
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.

“아브람아,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.  
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지?”

아브람이 하나하나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.  
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이 있었죠.

별이 너무 많아서 아브람은 자꾸만  
별을 세다가 틀렸어요!





**“칠백 여든 둘, 칠백 여든 셋, 칠백 여든 넷...  
아이가만있자 하나님, 제가 방금 어디까지 세었죠?  
이거 나이가 들어서 제가 자꾸만 까먹습니다! 허허.  
그럼 다시... 하나, 둘....”**

**아브람이 처음부터 다시 세기를 몇 번을 반복하자  
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**

**“자자, 그만 그만 그만! 됐다 됐어! 그 정도면 충분하다!  
아브람아,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.  
저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 
이 땅에 너의 자손들도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란다”**



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은 아브람은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어요.  
그도 그럴것이 아브람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!

“내가 이제 나이가 백 살 가까이 됐고  
내 아내도 나이가 곧 90살인데  
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다고?  
에이, 하나님도 참...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걸까?”

그러자 아브람의 마음을 꿰뚫어보신 하나님께서  
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

**“아브람아,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?  
이 세상에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.  
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‘아브람’이 아닌 ‘아브라함’이 될 것이다.  
이 새 이름이 내가 너에게 한 특별한 약속의 증표가 될 것이란다.”**

**‘아브라함’은 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’라는 뜻이었어요.  
아브람, 아니 아브라함은 궁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만  
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!**



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 
아흔 아홉 살이나 되었어요!

또약별이 내리쬐는 어느 무더운 날  
아브라함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 
저 멀리서 낯선 사람 세 명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.

아브라함은 여행중인 나그네들이 무더위에  
잔뜩 지쳤을거라 생각하고 다급히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죠.





아브라함은 여행중인 나그네들이 무더위에  
잔뜩 지쳤을거라 생각하고 다급히 그사람들에게 달려갔죠.

“여보시오..! 여보시오....!  
여행길이 많이들 피곤하실텐데, 좀 쉬었다 가십시오.  
제가 곧 발 씻을 물과 음식을 준비시키겠습니다.”

세 사람은 좋다고 했고 아브라함과 아내 ‘사라’는  
부지런히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.



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 
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소고기 요리도 대접했죠.

갓 짜낸 우유와 버터까지 대접하니  
근사한 식사가 완성되었어요.  
세 사람은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었죠.

그리고 잠시 후,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 
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.

“당신의 아내 ‘사라’는 어디에 있습니까?”

“사라요? 제 아내는 지금 부엌에서 뒷정리를  
하고 있습니다만...”

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.

“당신의 아내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겁니다.  
내년 이맘때쯤이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.”



**“사라요? 제 아내는 지금 부엌에서 뒷정리를  
하고 있습니다만...”**

**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.**

**“당신의 아내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겁니다.  
내년 이맘 때쯤이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.”**

**그 말을 남긴채  
세사람은 다시 홀연히 길을 떠났어요.  
아브라함은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죠!**

**저 사람들이 아내 사라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 
무엇보다도 수년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 
어떻게 알고 있는것일까**

**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.**



그 말을 남긴채  
세사람은 다시 홀연히 길을 떠났어요.  
아브라함은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죠!

저 사람들이 아내 사라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 
무엇보다도 수년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 
어떻게 알고 있는것일까

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.

“오...웁거니! 저 분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었던게야.  
저 분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게야.”





**몇 해전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 
위해서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라구!  
오... 하나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”**

**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어요.  
그리고 이듬해, 아브라함이 딱 백 살이 되었을 때  
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죠.**

**이 아기를 통해 앞으로 수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테고  
그중에 이 잘못된 세상을 구해줄 특별한 사람이 나올 거라는거!  
하나님께서서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.**

